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 :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연은모¹, 최효식², 백근찬³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의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의 중학생 1,76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효과는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 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간접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인권 존중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적 간접효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인권 존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낮추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다문화 인권 존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 잠재조절 구조방정식, MAPS 2기

1. 국립경국대학교 교육공학과 부교수, emyeon@gknu.ac.kr (주저자)
2.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970218@cnue.ac.kr (공동저자)
3.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yesbkc1@snu.ac.kr (교신저자)

I. 서론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5%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교육부, 2025),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학교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진경, 2024; 구경호, 박경희, 2024; 조혜영, 김경임, 2018).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또래 및 학교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차별 경험은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동진, 서은숙, 2021; 오세현, 강현아, 2018). 소속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일 뿐 아니라 청소년 발달의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며(Jain et al., 2026),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Rubin, Coplan, & Bowker, 2009),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정서적 부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김동순 외, 2020; 김민지, 김용은, 김준, 2022; 김성민, 조영일, 2025).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에서의 단절 및 고립을 심화시켜 외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김효경, 서찬석, 2022), 이러한 관계적 외로움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종일, 2016).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는 사회적 위축이 또래와의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을 피하고 청소년 자신을 집단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인식으로,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또래 관계에서 외로움과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Kagan, Snidman, & Arcus, 1993; Rubin, Coplan, & Bowker, 2009). 따라서 사회적 위축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적 위축을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소영과 권성연(2022)은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외로움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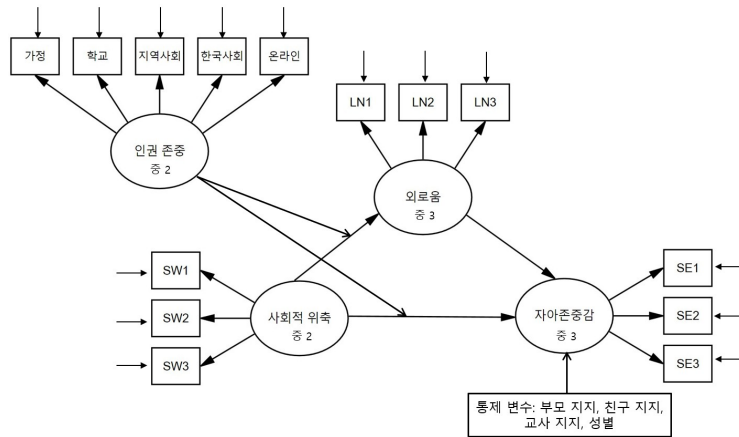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인권 존중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적 적응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맥락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사회, 가정, 또래로부터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 만족도와 삶의 만족이 증가하며, 타인에 대한 차별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봉숙, 정송화, 2024; 김준범, 이진석, 2020; 박수진, 박경애, 2020).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강효은, 2024;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 존중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인권 존중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부정적 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인권 존중 경험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절하는 환경 변인을 확인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자신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권 존중 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인권 존중의 다양한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지, 또는 일부 인권 존중의 수준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지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영향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인권 존중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중 어떤 측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인권 존중 수준에 따라 영향의 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인권 존중이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매개경로와 직접경로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인권 존중과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관계 및 맥락적 조건을 더 정교하게 규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이유는 회귀 기반 접근(regression-based approach)인 Hayes의 PROCESS macro(Hayes, 2022)가 측정오차를 모형에 포함하지 않지만,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은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사용하여 측정오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조절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heung et al., 2021; Klein & Moosbrugger, 2000).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이 모두 잠재변수이므로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도출할 수 있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것이 연구 문제 규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 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거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지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을 일컫는다(교육부, 2012).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 문화, 외모와 관련된 편견을 경험하며 다른 청소년에 비해 차별 등의 사회적인 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이미경 외, 2021; 이수민 외, 2021).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이므로(위애림 외, 2025),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일부 청소년은 또래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

도 한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 속에서 긴장과 움츠러드는 행동을 보이며, 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의미한다(설다연, 이동형, 2024; Rubin, Coplan, & Bowker, 2009).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한다(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이 감소하며,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고한다(김정은, 2020; 박동진, 김송미, 2021; 천지은, 박지선, 2021; Choe & Yu, 2025).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경향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자아존중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또래로부터의 수용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관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저하시켜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한나와 이정화(2024)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진선 외(202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정서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또래관계와 사회적 소속감 형성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또래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는 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이 관계를 설명하거나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선행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Wigfield et al., 1991). 이러한 선행 연구의 배경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매개요인과 조절요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가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충족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경험되는 고통스러운 정서로, 청소년의 80% 이상이 외로움을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정서 경험이다(Hawkley & Cacioppo, 2010). 따라서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가 부재할 때 경험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와 외모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한 김수현 외(2025)의 연구에 따르면,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외로움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는 사회적 위축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이유미 외, 2021; 이창우 외, 2021).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주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또래관계의 축소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을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외로움이 증가할 경우 개인의 자아존중감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Hawkley & Cacioppo, 2010),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형성된 관계적 고립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은 청소년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사회적 위축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외로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가치감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선숙과 김하영(2025)은 청소년의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이 자신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존재라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와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가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사회적 위축은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인지된 차별이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Bhushan et al., 2026; Pascoe

& Smart Richman, 2009; Wang et al., 2026), 인권 존중 경험은 인지된 차별을 낮춤으로써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교사, 또래, 사회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청소년 발달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Benner & Graham, 2013),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트레스 완충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이 또래나 주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경우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Cohen & Wills, 1985). 즉,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은 주변으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받는 환경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더라도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인권 존중 경험이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의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는 2019년 기준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차는 중학교 2학년 시기, 6차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5차(2023년)와 6차(2024년)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로움과 인권 존중이 5차(2023년)부터 측정이 되었기 때문이며, 현재 6차(2024년) 데이터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에 시간적 선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과 인권 존중은 5차 시기에,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은 6차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의 응답 자료가 있는 1,7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6차(2024년) 기준

변인	구분	N	%
성별	여학생	852	48.2
	남학생	915	51.8
거주지역	서울	184	10.4
	경인(경기+인천)	494	28.0
	충청 및 강원권	317	17.9
	경상권	448	25.4
	전라 및 제주권	324	18.3

2. 연구 도구

가.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사회적 위축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에서 발췌한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등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32$ 이다.

나. 외로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6차(2024년) 자료에서는 외로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유민상 외(2022)에 기초한 4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본 연구에서는 4문항 중 3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의 왜도 3.220과 첨도 10.182를 보여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항 제거 전후를 비교한 결과, 요인부하량은 삭제 전(.766~.910)과 삭제 후(.770~.905)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Cronbach's α 또한 삭제 전(.877)과 삭제 후(.868)의 변화가 거의 없어 척도의 구조적 일관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문항은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68$ 이다.

다.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6차(2024년) 자료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중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891$ 이다.

라. 인권 존중 정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인권 존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김경준 외(2014)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5문항(가정, 학교, 지역사회, 한국사회 전체,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을 사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조절 변수인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 간 관계를 조절하는 시간적 선행 요인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동일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alpha=.911$ 이다.

마.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와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유혜영, 백진아, 2023; 조화진, 2020; 주학 외, 2023; Choi et al., 2024).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도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서지영, 박민아, 한명희,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 외로움, 인권 존중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와 성별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2기(MAPS 2기) 5차(2023년) 자료에서는 부모 지지 6문항, 교사 지지 3문항, 친구 지지 3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 지지에 4점 척도로, 교사 지지와 친구 지지에 5점 척도로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5). 성별은 5차(2023) 자료에서 제공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여학생 0, 남학생 1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부모 지지 $\alpha=.872$, 교사 지지 $\alpha=.899$, 친구 지지 $\alpha=.892$ 이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 추정 시 잠재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을 활용하였다. Cheung과 Lau(2017)의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MS) 방법은 측정오차가 존재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관측변수 기반 회귀분석보다 모수 추정치의 절대편향(absolute bias)이 대체로 더 작고, 신뢰구간의 커버리지(coverage) 역시 이론적 기준치인 95%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변화 궤적을 추정하는 종단 모형이 아니라 조절된 간접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변수 간 이론적 선후관계와 측정 시점의 순서를 반영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을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추정 방법으로 MLR을 사용하였다. 둘째,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구조방정식 매개모형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L 추정을 사용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랩(bootstrapping)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MS)을 적용하였으며 추정 방법으로 ML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측정변수의 왜도(-0.47~1.94)와 첨도(-2.00~3.03)가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었고, 표본 크기 또한 1,767명으로 커서 ML 추정의 점근적 특성(asymptotic properties)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잠재조절 구조방정식(LMS) 모형에서는 XWITH 명령어를 이용해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사회적 위축×인권 존중)을 생성하고 ML 추정을 사용하였으며, MODEL CONSTRAINT로 정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해 5,000회 percentile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잠재조절 구조방정식은 CFI와 같은 전통적인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 간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해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모형(모형 1)과 조절된 매개모형(모형 2) 모두 ML을 통해 추정하였다. 즉, 매개모형(모형 1)의 적합도가 타당하고, 우도비 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될 때 조절된 매개모형(모형 2)이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직접경로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건부 직접효과는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조건부 간접효과는 부트스트랩 기반 신뢰구간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각 효과의 조건부 변화 양상은 루프 플롯(loop plot)을 통해 제시하였다. 루프 플롯은 조절변수

인 인권 존중을 $-3SD$ 에서 $+3SD$ 까지 0.1 간격으로 변화시켜 조건부 효과를 추정하였다(연은모 외, 2026; Cheung & Lau, 2017; Cheung et al., 2021; Klein & Moosbrugger, 2000; Maslowsky et al., 2015). Mplus 8.3에서는 XWITH로 잠재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생성하고, MODEL CONSTRAINT로 조절효과와 조절된 간접효과를 추정하였으며, LOOP와 PLOT 명령어를 사용하여 조건부 간접효과의 변화를 시각화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표 2〉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중 2 시기), 외로움(중 3 시기), 자아존중감(중 3 시기), 인권 존중(중 2 시기, 조절 변수)의 왜도($-0.47 \sim 1.94$), 첨도($-2.00 \sim 3.03$)는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16). 그리고 사회적 위축은 외로움과 정적 상관, 자아존중감 및 인권 존중 정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외로움은 자아존중감 및 인권 존중 정도와 부적 상관, 자아존중감과 인권 존중 정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표 2〉 참조).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인권 존중의 14개 측정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추정 방법: MLR) 결과(〈표 3〉 참조) $\chi^2(df=377.933(71)$, $p<.001$, CFI=0.970, TLI=0.961, RMSEA=0.049, SRMR=0.033으로 모형 적합도가 양호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은 0.674~0.928 범위에 분포하였다.

〈표 2〉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60**	1																
3	.63**	.65**	1															
4	.16**	.23**	.18**	1														
5	.19**	.24**	.20**	.70**	1													
6	.17**	.21**	.15**	.63**	.75**	1												
7	-.16**	-.22**	-.16**	-.31**	-.37**	-.31**	1											
8	-.18**	-.24**	-.19**	-.28**	-.31**	-.30**	.74**	1										
9	-.16**	-.22**	-.16**	-.35**	-.37**	-.35**	.73**	.72**	1									
10	-.08**	-.17**	-.07**	-.14**	-.14**	-.13**	.33**	.32**	.30**	1								
11	-.05	-.14**	-.05*	-.15**	-.15**	-.12**	.33**	.30**	.30**	.68**	1							
12	-.06**	-.14**	-.04	-.13**	-.13**	-.10**	.32**	.28**	.29**	.61**	.75**	1						
13	-.06*	-.14**	-.05*	-.12**	-.11**	-.10**	.32**	.29**	.31**	.59**	.71**	.85**	1					
14	-.04	-.09**	-.01	-.10**	-.09**	-.05*	.23**	.23**	.23**	.49**	.60**	.72**	.75**	1				
15	-.18**	-.23**	-.14**	-.15**	-.16**	-.14**	.32**	.32**	.31**	.50**	.38**	.36**	.36**	.29**	1			
16	-.18**	-.23**	-.20**	-.24**	-.24**	-.18**	.30**	.31**	.29**	.32**	.37**	.35**	.36**	.32**	.34**	1		
17	-.05*	-.12**	-.09**	-.12**	-.11**	-.10**	.27**	.27**	.26**	.37**	.43**	.39**	.41**	.36**	.36**	.49**	1	
18	-.03	-.02	.00	-.05*	-.08**	-.07**	.09**	.09**	.12**	.020	-.02	-.01	.00	-.05*	.02	-.05*	-.04	1
M	2.23	2.06	2.29	1.49	1.35	1.39	3.30	3.22	3.18	3.41	3.32	3.23	3.19	3.13	3.25	3.94	3.85	0.52
SD	0.92	0.83	0.94	0.76	0.67	0.70	0.59	0.60	0.65	0.54	0.53	0.54	0.57	0.61	0.49	0.66	0.75	0.50
Sk	0.11	0.27	0.11	1.42	1.94	1.76	-0.33	-0.47	-0.22	0.00	-0.07	-0.17	-0.30	-0.19	-0.30	-0.34	-0.07	
Ku	-0.96	-0.75	-0.95	1.11	3.03	2.33	0.11	0.39	0.39	-0.46	-0.18	0.71	0.60	0.56	0.25	0.19	0.22	-2.00

* $p < .05$, ** $p < .01$. ※ 1: 사회적 위축(1), 2: 사회적 위축(2), 3: 사회적 위축(3), 4: 외로움(1), 5: 외로움(2), 6: 외로움(3), 7: 자아존중감(1), 8: 자아존중감(2), 9: 자아존중감(3), 10: 인권 존중(1), 11: 인권 존중(2), 12: 인권 존중(3), 13: 인권 존중(4), 14: 인권 존중(5), 15: 부모 지지, 16: 친구 지지, 17: 교사 지지, 18: 성별(여학생: 0)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

$\chi^2(df)$	CFI	TLI	RMSEA(90% CI)	SRMR	요인부하량
377.933(71)***	0.970	0.961	0.049(0.045, 0.054)	0.033	0.674~0.928

*** $p < .001$

2.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

부모 지지, 친구 지지, 교사 지지, 성별을 통제 변수로 투입한 후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4〉와 같이 $\chi^2(df)=837.130(116)$, $p < .001$, CFI=0.956, TLI=0.944, RMSEA(90% CI)=0.059(0.056,

0.063), SRMR=0.048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표 5〉에 직접효과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적 위축($b=0.241$, $p<.001$)은 외로움에 정적 관련성, 인권 존중($b=-0.215$, $p<.001$)은 외로움에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사회적 위축($b=-0.059$, $p<.001$) 및 외로움($b=-0.299$, $p<.001$)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5,000회에 기초한 95% 신뢰구간을 활용한 결과(〈표 6〉 참조),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에서 외로움을 거쳐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95% CI: -0.092, -0.054).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부적 간접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매개모형 적합도

$\chi^2(df)$	CFI	TLI	RMSEA(90% CI)	SRMR
837.130(116)***	0.956	0.944	0.059(0.056, 0.063)	0.048

* $p<.05$, ** $p<.01$, *** $p<.001$

〈표 5〉 매개모형의 직접효과 추정치

경로	b	SE
사회적 위축 (X) → 외로움 (M)	0.241***	0.026
인권 존중 (W) → 외로움 (M)	-0.215***	0.044
사회적 위축 (X) → 자아존중감 (Y)	-0.059**	0.020
외로움 (M) → 자아존중감 (Y)	-0.299***	0.026
부모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210***	0.029
친구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088***	0.023
교사 지지 (C) → 자아존중감 (Y)	0.096***	0.019
성별(여학생: 0) (C) → 자아존중감 (Y)	0.099***	0.022

* $p<.05$, ** $p<.01$, *** $p<.001$

〈표 6〉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추정치

경로	Estimate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0.072	0.010	-0.092	-0.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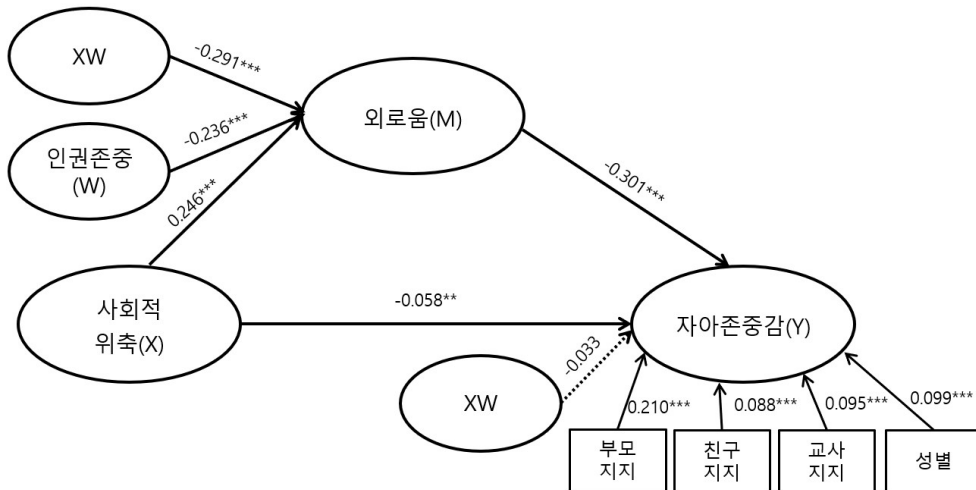
3.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포함한 모형 설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매개모형과 사회적 위축과 인권 존중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된 매개모형 간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을 하였다(Klein & Moosbrugger, 2000; Maslowsky, Jager, & Hemken, 2015). <표 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제시된 우도비 검정 결과, $D=20.976$, $df=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AIC와 BIC 역시 조절된 매개모형에서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조절된 매개모형이 매개모형보다 유의하게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채택하여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해석하였다.

〈표 7〉 매개모형과 조절된 매개모형의 적합도 비교: LRT ($D = -2\Delta LL$)

	AIC	BIC	Free Parameters	Log-likelihood H0 Value	D(df)
매개모형	46258.494	46658.317	73	-23056.247	20.976(2) ***
조절된 매개모형	46241.517	46652.295	75	-23045.759	

*** $p<.001$



[그림 2] 조절된 매개모형 분석 결과

먼저, <표 8>의 상호작용항을 보면,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 효과($b=-0.033$, $p>.05$)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권 존중이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8>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경로	b	SE
사회적 위축 (X) × 인권 존중 (W) → 자아존중감 (Y)	-0.033	0.054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를 확인한 결과(<표 9> 참조), 인권 존중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가 0.088이며, 95% 신뢰구간(95% CI: 0.039, 0.140)에 기초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부트스트랩 5,000번). 이는 조절 변수인 인권 존중이 간접효과(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의 크기를 유의하게 조절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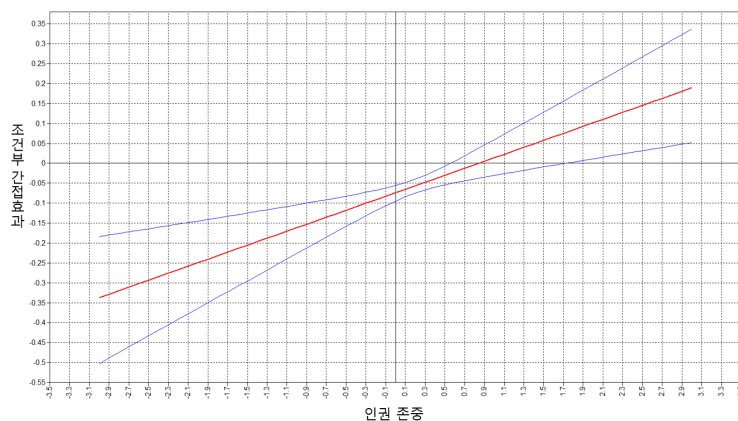
<표 9> 조절된 매개효과의 지수

	Estimate	SE	95% bootstrap CI (percentile)	
			Lower	Upper
인권 존중 (W)	0.088	0.026	0.039	0.140

이에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표 10> 참조). 인권 존중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2SD)은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네 집단은 부적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특히 평균-2SD, 평균-1SD, 평균, 평균+1SD 순으로 매개효과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과 같이 인권 존중의 다양한 수준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를 시각화한 루프 플롯(loop plot)에서도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부적 간접효과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의 루프 플롯은 인권 존중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루프 플롯에서 파란색 영역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X축은 조절변수인 인권 존중, Y축은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 간 관계가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부적 간접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위축-외로움-자아존중감 간 부적 간접효과 또한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추정 결과

인권 존중 수준 (W)	Estimate	SE	95% bootstrap CI (percentile)	
			Lower	Upper
평균-2SD	-0.139	0.025	-0.191	-0.093
평균-1SD	-0.106	0.017	-0.141	-0.076
평균	-0.074	0.010	-0.095	-0.055
평균+1SD	-0.042	0.010	-0.062	-0.023
평균+2SD	-0.009	0.017	-0.042	0.024



[그림 3] 인권 존중 수준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변화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와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 및 조건부 간접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가 인권 존중 수준에 따라 강화 및 약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한나, 이정화, 2024).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우울,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김동순 외, 2020; 김철

희, 2022; 최장원, 서동현, 2026). 특히 사회적 위축을 높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소통 및 관계 형성 과정에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와 소속감이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단순한 개인 특성이 아니라 정서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학교생활과 또래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완화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외로움의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외로움이 다시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간접경로 역시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이유미 외, 2021; 이창우 외, 2021)와 외로움이 자아존중감 저하와 관련된다는 연구(Hawkey & Cacioppo, 2010)를 모두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때 경험되며,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에서(김수현 외, 2025)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또래 및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상은, 최나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 청소년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외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위축을 완화하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외로움을 낮출 수 있는 또래관계 질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 간 관계에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유의하게 나타나, 인권 존중이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간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호 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권 존중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 존중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낮아지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더라도 외로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의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박선숙, 김하영, 2025).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인권 존중이 가장 높은 집단(평균+2SD)의 경우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 존중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인권 존중은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경로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권 존중 수준이 매우 높을 때에는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와 교사가 포함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타인에 의해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사회적 위축에 대한 인식이 외로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언어적 차이와 외모 등의 이유로 공동체 내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학교 적응에 부정적이고,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높일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동진, 서은숙, 2021; 김민경, 김윤정, 2024).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와 지역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학교 및 교실 분위기 조성, 차별 예방 교육,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접근뿐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뿐 아니라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또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안내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사를 위한 인권 연수, 학생 대상 재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나, 인권 존중 인식 수준에 따라 부적 관련성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과 무관하게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간접 경로에서는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가

달라지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청소년의 외로움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권 존중 환경이 잘 조성된 경우 사회적 위축이 외로움을 매개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화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권 존중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모든 청소년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약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외로움과 자아존중감을 동일 시점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시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발달 과정을 고려한 사회적 위축, 외로움, 자아존중감 간 관계와 인권 존중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더욱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조절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부모의 자아존중감 증진뿐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향상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6. 5. 31. ※ 논문 수정일: 2026. 7. 10. ※ 게재 확정일: 2026. 7. 30.

〈참고문헌〉

- 강효은(2024).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동향. **상담교육연구**, 7(1), 1-14.
- 교육부(2012).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 고진경(2024).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미래사회**, 15(2), 89-100.
- 구경호, 박정희(202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영향 요인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10(3), 79-103.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91-125.
- 김동진, 서은숙(2021). 차별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차별하는 주체의 구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0(2), 169-184.
- 김민경, 김윤정(2024).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인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6), 431-441.
- 김민지, 김용은, 김준(2022).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다문화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1), 193-207.
- 김봉숙, 정송화(2024).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만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5), 39-63.
- 김성민, 조영일(2025).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21(4), 37-54.
- 김수현, 최정화, 허영란(2025). 다문화 및 비다문화 청소년의 과일 섭취와 정신건강 비교 연구: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1을 이용하여. **Human Ecology Research**, 63(2), 175-183.
- 김정은(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21-37.
- 김준범, 이진석(2020). 청소년 인권존중 경험과 교육이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127-152.
- 김철희(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231-249.
- 김한나, 이정화(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1(11), 63-88.
- 김효경, 서찬석(2022). 집단괴롭힘 경험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437-458.
- 박동진, 김송미(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23(3), 127-146.
- 박선숙, 김하영(2025).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인권의식과 지역자본의 매개효과. **한국 사회과학연구**, 44(1), 209-234.
- 박수진, 박경애(2020). 청소년의 인권존중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349-365.
- 서지영, 박민아, 한명희(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형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3(3), 290-298.
- 설다연, 이동형(2024).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40(4), 257-280.
- 신소영, 권성연(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67-91.
- 여종일(2016). 남녀중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증상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3(1), 129-152.
- 연은모, 최효식, 백근찬(2026). 청소년의 협동심, 행복감, 공격성 간 관계에서 또래관계 질의 조건부 직접효과와 조건부 간접효과. **교육문화연구**, 32(2), 581-600.
- 오세현, 강현아(2018). 지역사회동센터 이용아동의 차별 피해 경험이 차별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4), 611-637.
- 위애림, 윤채호, 최정옥, 이웅택(2025) 청소년의 동아리활동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6(2), 59-82.
- 유민상, 신동훈(202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블루노트 이슈 & 정책**, 141.
- 유혜영, 백진아(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77-101.
- 이미경, 이현경, 박창기, 김유림, 김수경, 이혜연(2021).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차별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4(1), 22-32.
- 이상은, 최나야(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가정과삶의질연구**, 39(1), 17-29.
- 이수민, 양난미, 이아라(2021).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5), 776-793.
- 이유미, 이동형, 정경수(2021). 청소년의 수줍음이 외로움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실성과 성별의 조절된 조절효과. **교육혁신연구**, 31(2), 143-167.
-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중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43-261.
- 이창우, 이동형, 신지연(2021). 남녀 고등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 및 안녕감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9(2), 67-94.
- 정주미, 이동형(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 조혜영, 김경임(2018).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동아리활동 참여 경험과 의미: 학교생활 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54, 261-296.
- 조화진(2020).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또래애착, 지역사회인식과 삶의 만족의 관계: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0), 1-27.
- 주학, 고희숙, 김성봉(2023).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4(10), 370-379.
- 천지은, 박지선(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1-29.
- 최장원, 서동현(2026).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3(1), 431-462.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X: 사업보고서(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5).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이용자 지침서: 2기 패널 (제1-6차 조사 데이터)**.
- Benner, A. D., & Graham, S. (2013).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racial/ethnic discrimination during adolescence: Does the source of discrimination matter?. *Developmental Psychology*, 49(8), 1602-1613.
- Bhushan, N. L., Stoner, M. C. D., Browne, E. N., Shapley-Quinn, M. K., Jaime-Aguilar, A., Raymond-Flesch, M., & Minnis, A. M. (2026). The longitudinal association between experiences of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Latine adolescents in an agricultural commun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78, 888-895.
- Cheung, G. W., Cooper-Thomas, H. D., Lau, R. S., & Wang, L. C. (2021). Testing moderation in business and psychological studies with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36(6), 1009-1033.
- Cheung, G. W., & Lau, R. S. (2017). Accuracy of parameter estimates and confidence intervals in moderated mediation models: A comparison of regression and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20(4), 746-769.
- Choe, C., & Yu, S. (2025). Longitudinal cross-lagged analysis between depressive symptoms,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and school adapta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Psychologica Belgica*, 65(1), 38-53.
- Choi, H., Cho, S., Kim, J., & Lee, S. M. (2024). The role of teacher support in the self-esteem of Korean adolescents with burnout.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lors in Schools*, 34(1), 84-96.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Hawkey, L. C., & Cacioppo, J. T. (2010). Loneliness matter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of consequences and mechanism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40(2), 218-227.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The Guilford Press.
- Jain, R., Allen, K.-A., Grove, C., & Melzak, E. (2026). Examining factors influencing belonging amongst immigrant adolescents: A scoping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0, 108675.
- Kagan, J., Snidman, N., & Arcus, D. (1993). On the temperamental categorie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children. In K. H. Rubin & J. B. Asendorp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19-28). NJ: Erlbaum.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Guilford Press.
- Klein, A., & Moosbrugger, H. (2000).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latent interaction effects with the LMS method. *Psychometrika*, 65(4), 457-474.
- Maslowsky, J., Jager, J., & Hemken, D. (2015). Estimating and interpreting latent variable interactions: A tutorial for applying the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method.

-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1), 87-96.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141-171.
- Wang, Y., Huang, Q., Kim, D., Liu, J., Lin, S., Zhang, Y., Del Toro, J., & Civitillo, S. (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n intensive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65(5), 652-668.
- Wigfield, A., Eccles, J. S., Mac Iver, D., Reuman, D. A., & Midgley, C. (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Changes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Yeon, Eun Mo¹, Choi, Hyo-Sik², Baek, Keunchan³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role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Data from 1,767 multicultural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5th (2023) and 6th (2024) waves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Phase II (MAPS II) were analyzed using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withdrawal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 on their self-esteem and a significant negative indirect effect on self-esteem through loneliness. Second, only the moderated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and self-esteem, and this negative indirect effect increased when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low. Thes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building an environment that respects multicultural human rights,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o enhance their self-esteem.

Keywords : social withdrawal, loneliness, self-esteem, respect for human rights, 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MAPS II

1. Associate Professor,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emyeon@gknu.ac.kr (Lead Author)

2. 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970218@cnu.ac.kr (Co-Author)

3. Assistant Professor, Donggang University, yesbkc1@snu.ac.kr (Corresponding Author)